

도의회 상임위 '너도나도 국외연수'

환복위 중국·행자위 동유럽 5개국·교육위 일본·산경위 일본 등... 1인당 250만원 경비 지원

전북도의회가 하반기 첫 국외연수에 나선다. 24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말 환경복지위원회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마다 국외연수에 나선다. 먼저 환경복지위원회는 오는 29일부터 4박6일 일정으로 중국(성도·구제구) 연수에 나선다. 이번 연수에는 의원 6명 등 총

12명이 동행한다. 이어 행정자치위원회와 교육위원회가 다음달 19일 국외연수를 간다. 행자위는 7박9일 일정으로 동유럽 5개국 탐방에 나서는 데 12명(의원 8명·직원 4명)이 몬테네그로와 크로아티아·슬로베니아·오스트리아·체코 등을 둘러본다. 5박6일 일정으로 일본(동경·나고야·오

사카 등)로 향하는 교육위는 11명(의원 7명·직원 4명)이 출국한다. 또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9월20일부터 8박10일간의 일정으로 이탈리아로 향한다. 문건위 소속 13명(의원 8명·직원 5명)은 고대 건축물 등을 이용해 관광문화를 이끌고 있는 이탈리아 곳곳을 둘러보게 된다.

가장 늦게 국외연수에 나서는 산업경제위원회는 9월22일부터 5박6일 일정으로 일본(후카이도·오카나와)을 방문한다. 이번 도의원들의 국외연수 경비는 1인당 250만원이 지원되고 나머지는 자부담이다. 전북도의회 관계자는 "각 상임위마다 정책 개발 등을 위해 국외연수 일정이 잡혔다"고 밝혔다. /뉴스

국민의당 '전국 시도당 지방의원 연석회의'

국민의당은 24일 대전 효문화마을 관리원에서 '제1차 전국 시도당 지방의원 연석회의'를 가졌다. 국민의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이날 이성일(군산) 도의원, 김문철(전주) 시의원이 국민의당 전라북도당 광역·기초의원들을 대표하여 수상을 했고, 박정희(군산) 시의장은 자유토론 주제 발표자로 나와서 주제 발표했다. 국민의당 전북도당 김광수 위원장은 "창당이후 공식적으로 국민의당 의원들을 모두 만나는 기회가 돼 소속감을 높이고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기회가 됐다"며 "전북도당 역시 도민의 상식과 기존 원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신광명 기자

김춘진 더민주 도당위원장 호남권 최고위원 선임 6개월 동안 직무 맡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김춘진 위원장이 호남권 최고위원으로 선임됐다. 도내 정가에 따르면 김춘진 위원장, 이형석 광주광역시당위원장, 이개호 전남도당 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김 위원장은 6개월 동안 최고위원직을 맡게 되며 이후 이형석 광주광역시당위원장이 8개월, 이개호 전남도당위원장이 10개월씩 최고위원직을 이어가며 임기 2년을 채울 예정이다. /신광명 기자



“백남기 농민 사건 청문회 열어주세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성농민회 등 관계자들이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한 청문회를 열 것 요구하고 있다.

조운선 문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31일 실시

조운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31일 열린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을 의결했다. 조 후보자는 지난 16일 문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됐으며, 정부는 지난 19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조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초대 여성가족부 장관에 발탁됐고, 청와대 정부수석 비서관을 거쳐 다시 장관 후보자에 올랐다. 조 후보자의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사항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등의 재산을 합해 모두 52억9922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청문회에서는 조 후보자가 여가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한 차례 검증 받은 만큼 이번 청문회도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과 여소야대 국면에서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엇갈리고 있다. /뉴스

진영 “새누리당, 역할 제대로 못해”

새누리당 출신인 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새누리당을 겨냥, “크게는 국가적 과제에 대한 문제, 국민의 관심사인 현안문제 해결에 있어서 얼마나 정당이 기여를 하고 정부를 견인하느냐의 부분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고 비판했다. 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야당의 역할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여당을 보면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새누리당에 있다가 더불어민주당에 와서 차이점이 무엇이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았다.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지만 제일 두드러진 것이 역사성을 얼마나 생각하는가인 것 같다”며 “더불어민주당에는 전직 대통령이나 정치지도자의 사진이 있는데 새누리당에서는 전혀 언급도 되지 않고 오히려 전직과는 단절하려는 모습이었고,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인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그러면서 “우리 정당도 세계화해야 한다. 선진국의 정당들이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봐야하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꼬집었다. /뉴스

“농민·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삶의 질 향상을”

국주영은 도의원, '전라북도 한국수화언어 지원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도의원(전주9)은 24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북농어인협회 관계자들과 '전라북도 한국수화언어 지원조례' 제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주영은 도의원은 이날 “한국수화언어는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민의 고유한 언어”라며 “한국수화언어의 발전 및 보전의 기반을 마련해 농민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섰다”고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농민과 한국수어사용자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특히 농민 등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및 관련 서비스 등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라북도 한국수화언어 지원 조례 간담회

아울러 수어용역을 필요로 하는 농민 등에게 수어통역 지원과 도의 공공행사의 절차, 공공시설 이용 등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밖에 한국수어의 날과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신광명 기자

이와 함께 당정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 농가 피해 등을 고려해 당초 동결하기로 했던 농업 분야 예산도 1200억원 늘리기로 가닥을 잡았다.

내년 나라살림, 일자리·문화융성 투자 중점

400조 넘어설 듯... 청년일자리 예산 15% 이상 ↑ · 어르신 500억 ↑

정부와 여당이 내년 청년 일자리 관련 예산을 15% 이상 증액하는 등 일자리 분야에 대한 재정 지출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내년 예산 증가율을 3% 후반대로 잡아 400조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보인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지난 당정협의에서 (증가율) 3~4% 수준으로 하기로 했는데 오늘 (정부안을) 보니 3% 후반부였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1%를 넘지 않는 선에서 규모를 최대한 키워달라고 요청했는데 40.5%를 넘지 않은 선으로 굉장히 안정되게 됐다”며 “안정된 가운데 그만큼 (예산) 규모를 늘렸

다”고 평가했다. 올해 예산 규모는 386조4000억원이다. 증가율이 3.6% 이상일 경우 내년 예산은 400조원을 돌파하게 된다. 당정은 청년·일자리 분야 예산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김 의장은 “일자리 예산은 10% 이상 증액되고 청년 일자리 분야는 올해 2조3000억원 수준인데 내년에는 15% 이상 대폭 증액된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 해경, 행정공무원 포함 공공부문 일자리를 3400개 가깝게 증원토록 했다”며 “어르신 일자리 예산은 500억원 가까이 증액시켜 5만개의 일자리를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화 분야 예산과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도 평균 증가율을 웃돌게 편성됐다.

이와 함께 당정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 농가 피해 등을 고려해 당초 동결하기로 했던 농업 분야 예산도 1200억원 늘리기로 가닥을 잡았다. 병영시설과 전의경 숙박시설 관련 예산도 늘리기로 했다. 630억원을 들여 전의경 숙박 시설에 모두 에어컨을 설치하고 의경 노후 버스 교체 비용 등으로 592억원을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내년 예산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 재고,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하겠다고 하며 “정부 예산으로는 국제 수입이 증가하기 때문에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비율도 다소 개선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내년 예산은 일자리와 문화융성 투자에 중점을 뒀고 SOC 투자는 내실화했다”며 “계급 산업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경력단절 여성, 노인, 취약계층 등에 대한 일자리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뉴스

차대통령, '음주운전' 이철성 경찰청장 임명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 음주운전 사고를 낸 전력으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청와대는 24일 박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신임 경찰청장으로 공식 임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2일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송부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이 음주운전 사고 논란에 휩싸인 이 후보자를 상대로 사퇴를 주장하면서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22일)을 넘겼다. 그러자 박 대통령은 전날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재요청했다. 그 시한을 23일 하루로 잡았으며 청문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자 이날 임명안을 재기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청문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고 청문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통령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10일 이내에 기간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 채택을 다시 요구할 수 있다. 만일 이 기간까지도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청문회법에 따라 언제든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한편, 제20대 경찰청장으로 임명된 이철성 현 경찰청 차장은 24일 “국민과 동료를 섬기는 자세로 일하면서, 말보단 행동으로 마음의 빛을 하나씩 갠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서대문구 미군동 경찰청사 13층 대청마루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최근 오래된 제 허물로 인해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말보다는 행동으로, 저 혼자보다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경찰에 주어진 시대적 사명을 완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

추미애, “안철수, 세월호 선장처럼 먼저 탈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24일 안철수 전 국민 의당 대표를 겨냥, “무한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마치 세월호 선장이 배를 버리고 탈출하듯이 먼저 탈출했다”고 맹비난했다. 추 후보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사집중’ 인터뷰에서 “이 때문에 담이 더 심하게 흔들렸고, 그들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라며 “이것이 주장했다. 안 전 대표가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추 후보는 이어 “지난 대선 때는 후보단일화, 통합을 그냥 기계적으로, 당대 당 정치공학적인 통합만으로 바라보면서, 지리멸렬했다”며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질 때까지 일만 벌리고 앉아 있는 형국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대선의 후보단일화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고 그로 인해 대선에서 패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추 후보는 대선 패배와 지금의 야당 분당 과정을 설명하면서 안 전 대표에게 각을 세운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의당의 ‘연대불가론’, ‘3자필승론’에 대해 “설령 3자 대결이 되더라도 제가 강한 야당을 만들겠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그는 자신에 대한 ‘호남포기’ 등의 비판을 제기한 김상곤 후보를 향해 “지지층 통합을 먼저 하겠다는 것인데 어느 후보는 왜곡해서 호남포기론이라고 왜곡하고, 더 나아가서 연대불가론이라고 또 조작을 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문재인 전 대표를 호가호위한다”는 비판에 “저는 민주당을 지키는 ‘호민’이자, 국민의 후위무사, 국민을 지키는 호민관”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계파 정치 이런데 결눈질 해본 적 없고, 결별조차 쥘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뉴스

박지원, 황주홍에 ‘야인마 나가기’ 등 거친 표현 사과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전남 의원총회에서 황주홍 의원과 고성을 주고받으며 충돌한 상황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전 동구 중앙시장 활성화구역 상인회 사무실에서 열린 현장 비대위에서 “어제 의총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국민들과 당원 그리고 우리 당 의원들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비대위원장이자 원내대표로서 또 선배 의원으로서 자제했어야 마땅했다. 공식회의에서 거친 표현을 사용한 것은 제 잘못이었고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고개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황 의원을 비롯해 모든 의원들과 긴밀하게 소통해서 우리 당이 국민 지지를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황 의원은 전남 의총에서 박 위원장의 의사결정 구조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고, 이에 박 위원장은 맞받아치며 고성이 오갔다. 그 과정에서 황 의원은 “선배님의 넓은 정치 때문에 당이 이렇게 됐다. 원만소 그만하라”고 직격했고, 박 위원장은 “야인마 너 나가기”라며 큰 소리를 냈다. /뉴스